

휴젤, 보톡스 1위 굳히기... 유럽 진출 신호탄

지난 1월 폴란드·독일 임상 3상 완료
오스트리아 소재 제약사와 파트너십
미국 현지 자회사에 신임 대표 영입



휴젤이 글로벌 보툴리눔 시장을 빠르게 공략하고 있다.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보툴리눔 독신 제제 '보툴렉스'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과 미국 유럽으로 발을 넓혀가고 있다.

휴젤은 30일 약 1조원 규모 유럽 보툴리눔 독신 시장 진출을 위해 유럽 판매처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휴젤은 지난해 1월 유럽 유통 파트너사인 '크로마'와 함께 폴란드, 독일 임상 3상을 완료한 바 있다. 이후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업을 진행, 29일(현지시간) 유럽의약품청(EMA)에 허가신청서 제출을 마쳤다. 신청서 제출

후 허가까지 약 1년 여가 소요되는 만큼, 내년 중순에 유럽 판매 허가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 보툴리눔 독신 시장은 약 1조 원 규모로, 미국과 함께 전세계 보툴리눔 독신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시장이다. 휴젤은 판매 허가 획득 후 유럽 시장 내 성공적인 안착을 목표로 오스트리아 소재 제약사 크로

마와 파트너십을 체결, 크로마가 유럽 시장 내 '레티보(유럽 수출명)'의 유통을 담당한다.

크로마는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으로, 40년 이상 쌓아온 마케팅 노하우와 성공 경험을 갖췄다. 휴젤은 크로마의 대표 제품 '세이파 필러'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한 빠른 시장 점유율 확대, 오는 2025년까지 유럽 시장 점유율 10~1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도 보폭을 넓히고 있다. 휴젤은 최근 미국 현지 자회사에 제임스 하트만 신임 대표를 영입하고 미국 진출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지난 2018년 설립한 '휴젤 아메리카'는 휴젤이 지분 70%를 보유한 자회사로, 미국, 캐나다, 호주 및 뉴질랜드 시장 내 휴젤 제품에 대한 유통 및 마케팅 활동을 직접 운영한다. 휴젤은 올해 연말경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품목허가(BL

A)를 신청해 내년 말에 정식 허가를 취득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진출도 임박했다. 휴젤은 지난 4월 9일 이미 중국 허가 심사를 마치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회사측은 이르면 7월 중국 허가를 받고, 하반기 중국 수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휴젤 관계자는 "유럽은 중국, 미국과 더불어 전 세계 보툴리눔 독신 시장을 이끄는 주요 시장 중 하나로 이번 판매 허가 신청서 제출은 휴젤의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확대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올해 중순에 허가를 앞두고 있는 중국 시장과, 올해 연말 판매허가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미국까지 성공적인 글로벌 빅3 시장 진출을 통해 휴젤의 글로벌 기업 도약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빙그레 '꽃게랑'의 고급스런 변신

빙그레가 꽃게랑 브랜드를 의류 및 패션 아이템으로 재해석한 재미있는 캠페인을 선보인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꽃게랑 스넥의 모양을 로고화하여 패션 브랜드 'Cotes Guerang(코뜨-게랑)'을 런칭하는 컨셉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에서 빙그레는 꽃게랑 브랜드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빙그레는 패션 아이콘 지코를 모델로 기용하고, 꽃게랑 로고를 사용한 티셔츠 2종, 반팔 셔츠, 선글라스, 미니백 2종, 로브, 마스크를 한정판으로 출시한다.

/조효정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CWP291'

폐섬유화증도 효능 확인



폐섬유화증 치료용 조성물 특허출원
CWP291, 다양한 암종 대상 개발 진행

JW중외제약이 개발 중인 Wnt 표적 항암제 'CWP291'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뿐만 아니라 중증 폐질환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W중외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CWP291을 '폐섬유화증 치료용 조성물'로 특허 출원했다고 30일 밝혔다.

폐섬유화증은 폐 조직이 굳어서 심각한 호흡장애를 불러일으키는 호흡기 질환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폐조직

이 손상되거나 발생하며 한 간질성 폐염증으로부터 진행된다.

CWP291은 암세포의 성장과 암 줄기세포에 관여하는 신호전달 물질인 Wnt/β-catenin 기전을 억제하는 표적항암제로 다양한 암종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있는 혁신신약(First-in-Class) 후보물질이다.

JW중외제약은 CWP291을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뿐만 아니라 약물동태(체내 약물농도 변화)와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로나19 치료용도로 지난 11일 특허를 출원하고 본격 개발에 착수한 상태.

최근 종료된 동물 모델 효능평가에서 기존 사용 약물 대비 동등 이상의 항섬유화 효능이 확인돼 코로나19 관련 폐질환 치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단장증후군 치료신약 FDA 희귀의약품 지정

한미약품, 소아질병 의약품 추가 지정



한미약품은 단장증후군 치료 바이오신약으로 독자 개발 중인 랩스GLP-2 아날로그(LAPSGLP-2 Analog)가 미국 식품의약품(FDA)로부터 희귀소아 질병 의약품(RPD)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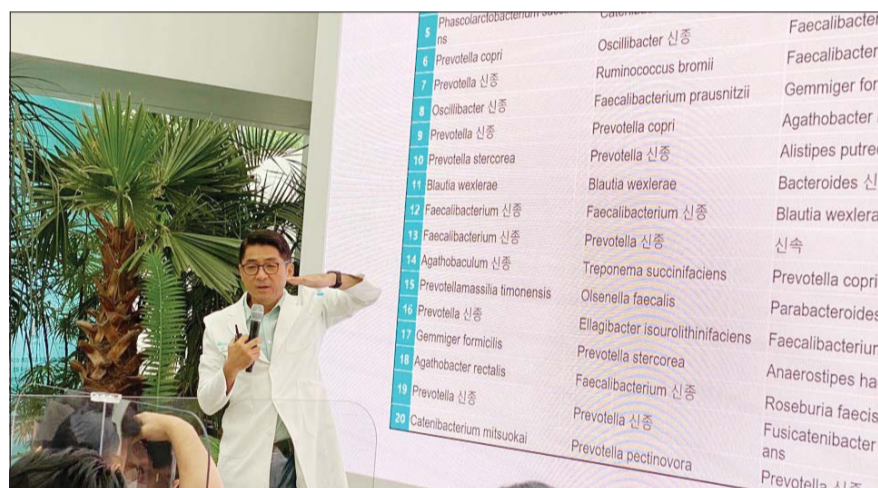
지난 24일 먼저 RPD로 지정된 선천성 고인슐린증 치료 바이오신약(LAPSGlucagon Analog)에 이어 두번째다. 한미약품은 RPD 연속 지정에 따라 30여개에 이르는 자사 혁신신약 파이프라인들이 희귀질환 분야에서 혁신성을 확고히 입증받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LAPSGLP-2 Analog의 개선된 체내 지속성 및 우수한 용도

세포 성장 촉진 효과를 바탕으로 월 1회 투여를 목표로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단장증후군을 앓고 있는 소아 및 성인 환자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단장증후군 적응증으로 국내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미국 및 유럽 임상 2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LAPSGLP-2 Analog는 2019년 FDA와 유럽 EMA로부터 단장증후군 치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세경 기자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식물관 PH에서 열린 론칭 행사에서 천중식 천랩 대표가 최초의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다. /원은미 기자

"150개국 개인별 맞춤형 헬스케어 시작"

천랩 '헬스케어 3단계 프로그램'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환경 분석 바탕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천랩이 생애 전 주기 마이크로옴 건강관리 서비스 시대를 열었다.

천랩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공식 론칭한다고 30일 밝혔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을 의미하는 microbe와 '생태계'를 의미하는 biome의 합성어로 '미생물 생태계'를 의미한다.

천랩은 30일 서울 강남구 '식물관 PH'에서 론칭 행사를 열고, '마이크로바이옴 헬스케어 3단계 프로그램'의 서비스 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천랩 최초의 B2C 서비스인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는 '헬스케어 3단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헬스케어 3단계 프로그램은 ▲1단계 '겟 인사이드'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또는 '장 유형 확인 설문' ▲2단계 맞춤형 프로&프리바이오틱스, '천랩바이오틱스' 제공 ▲3단계 '피비오'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관리로 이루어진 토탈 헬스케어 서비스다.

천랩은 독자적으로 전세계 150여 개국 3만 7000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플랫폼을 구축,

이지바이오클라우드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자용 솔루션으로 제공해왔다.

이번에 선보이는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서비스는 개인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를 균형 있게 바꾸어 개인의 건강 관리를 돕는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다. 천랩은 국내 주요 의료기관과의 임상연구 및 두 차례에 걸친 시민과학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수의 자체 연구를 통해 질환별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건강 지수인 'GMI'를 개발했다.

GMI는 ▲미생물 다양성 ▲염증 유발 미생물의 비율 ▲염증 억제 물질을 생성하는 미생물의 비율 ▲수렴체집인과의 유사도 등을 반영한 지수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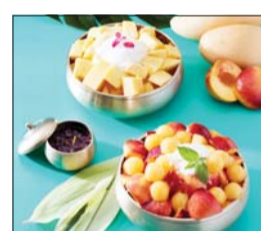
천랩의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자신의 GMI 수치와 장 유형을 찾는다. 2단계는 장 유형별 맞춤 프로&프리바이오틱스인 '천랩바이오틱스'를 제공한다. 마지막 3단계는 '피비오(pibio)' 애플리케이션으로 배변상태 변화를 포함, 기분, 복부팽만감 등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건강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여름 제철 과일 품은 빙수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이 본격 여름 시즌을 맞아 본관 1층 로비라운지 크리스탈 가든



에서 망고와 복숭아로 만든 빙수 2종(사진)을 선보인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크리스탈 가든의 빙수 2종은 여름 제철 과일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곱게 간 우유 얼음에 세프가 만든 홈메이드 단팥을 얹어 클래식한 우유 빙수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다. 빙수의 차가운 온도를 유지해 주는 고급스러운 방자유기에 담아내 시원함도 오래 느낄 수 있다.

'망고 빙수'는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크리스탈 가든의 여름 시그니처 메뉴로, 7년째 그 인기와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TBJ X 너구리 콜라보레이션

TBJ-농심

너구리 한마리 입고 가세요

한세엠케이의 베이직 트렌디 캐주얼 브랜드 TBJ는 식품전문기업 농심의 '너구리'와 손잡고 이색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출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TBJ X 너구리 콜라보 컬렉션'은 총 4종으로 구성됐다. 귀엽고 앙증맞은 너구리 캐릭터 모양의 후드티셔츠, 너구리 라면을 감쪽한 자수로 담아낸 볼캡,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포켓티셔츠와 그래픽티셔츠까지 다채로운 구성으로 힙하고 개성 있는 스타일을 뽐낼 수 있다.

/조효정 기자